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고기정 미디어솔루션본부장 "동아미디어센터 디지털 사이니지 혁신"	3면	국내 최초 테라피 리얼리티가 온다... '테라피 하우스-애라원' 1월 28일 첫 방송	4면	2025 서울마라톤 준비 시작! '폴코스 트레이닝' 인기
----------------	----	--	----	--	----	------------------------------------

더 넓게 퍼지는 사실의 가치와 압도적인 콘텐츠로 진화하는 동아

동아미디어그룹 2025년 시무식 개최...임원진, 국실본부장, 계열사 대표, 신입사원 등 46명 참석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과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이 1월 2일 시무식에 참석해 새로운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무식 참석자들은 계열사의 새해 목표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고, 김 회장은 시무식 종료 후 전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

"우리는 어렵게 확인한 진실과 공들여 정리한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1월 2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2025년 동아미디어그룹 시무식에서 "동아미디어그룹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며,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한 유일한 원칙은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라는 것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자"

김 회장은 지난해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로 신년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동아일보와 채널A 모두 흑자로 마무리 하며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동아미디

어그룹의 도약을 위한 3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올해 외부 환경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동아미디어그룹은 '더 넓게 울려 퍼지는 사실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겠다"며 첫 번째 경영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감추려 하는 것을 드러내고, 편향된 시선들에 갇혀 숨죽이고 있는 진실의 숨결을 듣는 것은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고,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경영방침은 '압도적으로 감탄할 만한 콘텐츠'였다. 김 회장은 "콘텐츠를 만드는 조직은 콘텐츠 결과물이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시장을 압도하고 경쟁자들조차도 감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 증명 콘텐츠'를 무엇으로 삼을 지를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대의 아이콘이 되

고 새로운 해시태그를 만들어내는 콘텐츠"라는 방향성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 경영방침으로는 '경이로운 진화를 위한 용감한 도전'을 꼽았다. 김 회장은 "대체 가능한 것들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개인과 조직이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더 나은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와 서비스 등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솔루션본부, 디지털랩 등 신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신설된 조직들을 직접 언급하며 활약을 당부했다. 올해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 구축되는 국내 최대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 "동아미디어그룹의 모든 창의적 역량과 변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펼쳐는 큰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소

개한 김 회장은 "미디어솔루션본부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모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과 디지털 역량의 열린 참여를 이끌어 달라"고 했다.

또 김 회장은 편집국과 보도본부에 각각 마련된 디지털랩에 대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뉴스 제작 및 전달체계를 각각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뉴스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흡인력을 갖고 있는 실시간 종합 콘텐츠라는 인식도 확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시무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국실본부장, 계열사 대표, 신입사원 등 46명이 참석한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구성원들의 새해 다짐과 목표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동아일보 사기를 제창했다. 시무식이 끝난 뒤 김 회장은 전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희철

2025년 동아미디어그룹 3대 경영방침



2025년 동아미디어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확정됐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이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올해 3대 경영방침의 의미에 대해 짚어본다.

더 넓게 울려 퍼지는 사실의 가치

올해 첫 번째 경영방침은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한 진실의 불빛을 더 멀리 비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취재한 사실로 촘촘하게 채워진 콘텐츠를 세분화 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진단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특히 그간 경험한 시행착오의 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거대한 변화를 고민하기 전 콘텐츠의 길이, 제목, 그래픽, 사진 등 작은 것부터 새롭게 바뀌어나가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올 해 동아만의 강력한 디지털 뉴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단 디지털랩만의 몫이 아니다. 동아미디어그룹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경쟁력 확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압도적으로 감탄할 만한 콘텐츠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와 성과로 세상에 보여진다. 이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이 먼저 인정하고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콘텐츠로 동아미디어그룹이 미디어 생태계를 압도하는 2025년이 되어야 한다.

올해 동아미디어센터에 구축되는 국내 최대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동아미디어그룹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문, TV, 디지털에 이은 새 채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축적한 모든 역량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과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경이로운 진화를 위한 용감한 도전

지금까지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해온 동아미디어그룹이 2025년부터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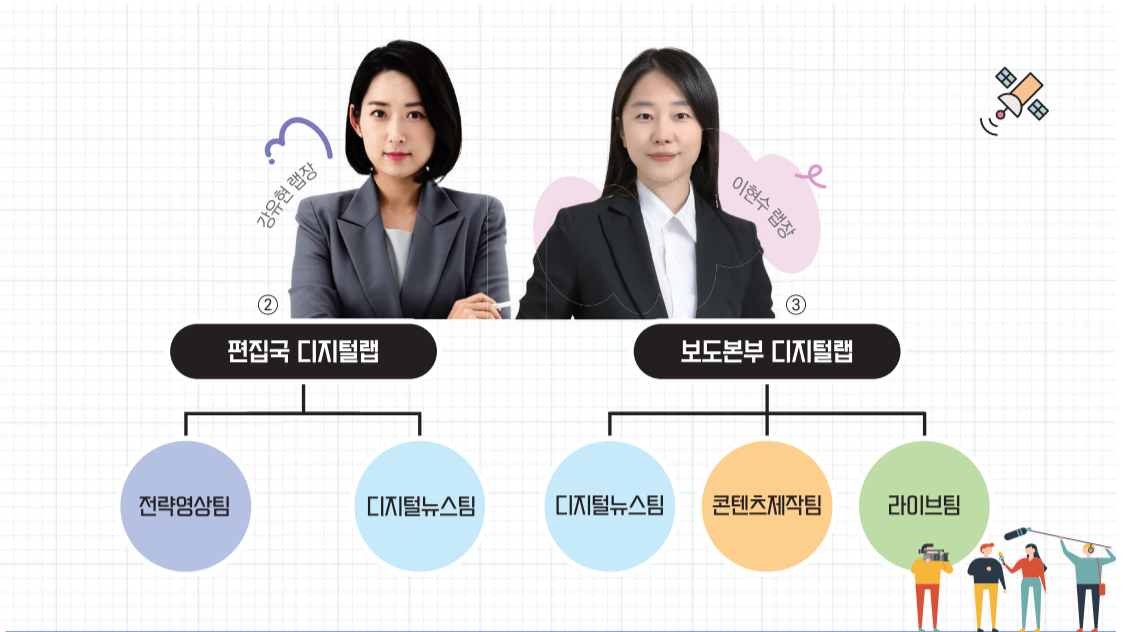
발 더 나아가 기술을 통해 우리의 영역과 활동을 바꿔나가는 취지에서 세 번째 경영방침이 마련됐다. 익숙하지만 대체 가능한 영역에서 과감히 벗어나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진화를 위한 도전은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대체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확보한 에너지와 시간은 사실의 확인, 더 큰 전략적 의사 결정, 독창적인 내러티브 구축, 신규 시장 개발 등 우리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최수연

고기정 미디어솔루션본부장 “동아미디어센터 디지털 사이니지 혁신”

강유현-이현수 디지털랩장 “소비자가 원하는 디지털 뉴스 세계 구축”... 2025년 신설 조직 리더 인터뷰



① 고기정 미디어솔루션본부장이 1월 9일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프로젝트' 현황과 계획을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② 강유현 동아일보 편집국 디지털랩장 ③ 이현수 채널A 보도본부 디지털랩장

2025년 동아미디어그룹의 도약을 위해 미디어솔루션본부와 디지털랩이 신설됐다. 미디어솔루션본부는 동아미디어센터에 새롭게 들어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작업은 물론이고 그룹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과 실행도 담당하게 된다. 편집국과 보도본부에 각각 마련된 디지털랩은 동아미디어그룹만의 디지털 뉴스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조직을 이끄는 고기정 미디어솔루션본부장과 강유현 편집국 디지털랩장, 이현수 보도본부 디지털랩장을 만나 올해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고기정 본부장 “압도적 규모와 예술적 디자인 갖출 것”

새로운 디지털 사이니지를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플랫폼으로 만드는 미디어솔루션본부는 2개의 팀으로 출범했다. 고 본부장은 “콘텐츠에 집중하는 C팀과 디지털 사업에 주력하는 D팀으로 구성됐다”면서 “두 팀이 업무 장벽 없이 한 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CD팀으로 통칭하고 있고, 구성원 각자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가 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뿐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도 더 큰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미다.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라 광화문 주변 빌딩들에 신규 전광판 설치에 예정된 상황에서 고 본부장은 동아미디어그룹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갖는 압도적인 규모와 형태를 차별화 포인트로 꼽았다. 그는 “국내 최대 면적(3000㎡)에 최고 높이(60m)가 선사하는 압도적인 규모감과 건물의 라운드 곡면을 살린 예술적 디자인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다사 전광판은 모두 광화문 광장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만 서울시청 쪽을 향하고 있어 광화문 진입의 ‘그리팅게이트(Greeting Gat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광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은 성장세”라며 “광화문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은 규제 완화 첫 해인 만큼 많은 관심 속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고 본부장은 “현안별 매트릭스 조직을 형성해 그룹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며 “그에 앞서 우선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선사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고 본부장은 “배일을 벗어나 ‘와우’라는 반응이 절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펼쳐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고 본부장은 미디어솔루션본부장과 함께 문화사업본부도 총괄하는 1인 2역을 맡는다. 그는 “마라톤 사업은 동아마라톤의 브랜드 가치와 레거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전시, 공연, 콩쿠르 등 문화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강유현-이현수 랩장 “취재역량 총결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강 랩장은 “105년간 쌓인 동아일보 취재 역량과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 이를 위해 ▲양질의 기사를 적시에 공급하는 디지털 상보 ▲지면의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길고 깊게 쓸 수 있는 온라인 온라인 콘텐츠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며 소비자와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직관성을 높인 동영상 콘텐츠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 랩장은 “뉴스 소비자 시각에서 읽고 싶은 기사를 중심으로 선출하고 기사를 선정하는 새로운 모바일 배면표 시스템을 시행됐다”며 “취재부서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 유튜브 정치사 라이브 코너를 론칭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정세를 실시간 분석해 전달하고, 시청자와 채팅·댓글 등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랩장은 “보도본부 디지털랩은 채널A만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채널A 뉴스를 온라인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디지털 뉴스팀 ▲채널A 역량을 총결집한 디지털콘

텐츠를 생산하는 콘텐츠제작팀 ▲주요 이슈의 유튜브 라이브를 담당하는 라이브팀 등 세 개의 팀이 각자의 영역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다. 이 랩장은 “공급자 마인드가 아닌 콘텐츠 소비자의 마음에서 무엇이 제일 궁금하고 보고 싶은지를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본부 디지털랩은 현장영상, 자막뉴스 등 기존 포맷과 함께 채널A만의 아카이빙을 활용한 새 포맷도 구상 중이다. 이 랩장은 “채널A가 개국한 지 14주년이 되어가는 만큼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우리만의 영상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브 스트리밍도 확대해 채널A 뉴스를 보지 않았던 소비자층까지 우리의 알고리즘으로 끌고 오겠다”며 “이슈의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자생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희현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최수연



미러클럽이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채널A 보도본부 경력기자 교육 현장. 동아미디어센터 부조성실 견학, 큐시트로 보는 뉴스A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설립 1주년 미러클럽,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시도

디지털랩 CD 대상 뉴스 촬영 강의, AI 전문가 초청 강의도 진행



2024년 설립 첫해 다양한 교육을 선보인 미러클럽이 2025년 영상 교육 콘텐츠 등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올해 미러클럽이 시도할 가장 큰 도전은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작이다. 새롭게 미러클럽에 합류한 이주희 CD가 콘텐츠 기획 및 촬영, 제작을 담당한다. 제작 시간에 쫓겨 미러클럽의 현장 교육을 시간 맞춰 수강하기 어려운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의를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미러클럽은 동아미디어그룹의 숨은 업무 ‘고수’들을 발굴해 노하우를 나누는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이를 공유할 전용 플랫폼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러클럽의 ‘본업’ 교육 프로그램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미러클 스튜디오의 신

년 첫 교육은 1월 6~9일 진행된 채널A 보도본부 ‘경력기자 코어클래스’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매년 꾸준히 경력 기자를 채용했지만, 방송 제작 방식을 체계화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력기자 3명은 ▲큐시트로 보는 뉴스A ▲보도정보 시스템 사용법 ▲영상 취재, 그래픽, 편집 협업 노하우 ▲유팩 라이브 스탠드업 실습 등으로 채널A 방식의 제작 시스템을 익혀 각 부서로 배치됐다. 경력기자로 입사한 허준원 전국부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자는 “지역 방송에 있다가 입사해 걱정이 많았는데 친절하고 세심한 교육 덕에 충분히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작 역량의 ‘코어 근육’을 다지는 미러클럽 ‘코어클래스’는 수습기자 코어클래스

와 더불어 경력기자 코어클래스, 데스크 코어클래스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동아일보와 채널A 양사에 신설된 디지털랩 CD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 촬영 강의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보도본부 기자들로부터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반응을 얻었던 ‘사로잡는 스탠드업’은 참신한 해외 방송 사례를 추가해 실습형으로 진행한다. 또 외부 기업과 협업해 콘텐츠 제작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미러클X클래스’도 선보인다. 지난해 장강명 작가, 이진우 삼프로TV 부대표 등이 나선 ‘1곳 스토리텔링’ 강의는 올해 시를 주제로 AI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미러클럽 이서현

국내 최초 테라피 리얼리티가 온다... '테라피 하우스-애라원' 1월 28일 첫 방송

신애라, '애라원' 원장으로 출격...저속노화 비법 등 공개

채널A가 선보이는 국내 최초 테라피 리얼리티 프로그램, <테라피 하우스-애라원 (이하 애라원)>이 1월 28일 오후 10시에 첫 출격한다. 프로그램 속 애라원은 나이와 비교해 몸이 빨리 늙는 것을 일컫는 '가속노화'가 고민인 사람들을 위한 테라피 하우스다.

애라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애라원의 원장이자 메인 MC로는 배우 신애라가 나선다. 신애라는 2020년부터 채널A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활약하며 채널A와 인연을 맺은 배우다. 애라원도 평소 촬영현장에서 보여주는 신애라의 모습에서 기획됐다고 한다. 애라원을 이끄는 김승훈 스튜디오 2CP는 "신애라 씨는 평소에 늘 건강에 대한 고민과 정보가 많았던 분"이라며 "녹화 전 대기실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금쪽같은 내새끼>에 함께 출연하는 흥현희 씨 집에 직접 찾아가 친정 엄마처럼 건강식을 챙겨주는 신 씨의 모습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실제로 신 씨는 같은 체중을 몇 십년 넘게 유지할 정도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① 애라원 코루들이 함께 가속노화를 막기 위한 스트레칭법을 배우고 있다. 왼쪽부터 코미디언 흥현희와 배우 신애라. ② 애라원의 원장 신애라의 모습이 담긴 애라원의 첫 포스터. 애라원에서는 '저속노화 밤', '기적의 수면법' 등 애라원만의 건강 관리 비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 CP는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웠던 신 씨의 생활 속 건강관리 비법들과 전문가들의 팁들을 함께 애라원에서 소개할 예정"이라며 "보통 1박 2일로 촬영이 진행되는데, 아침을 차려 먹는 모습부터 운동, 휴식, 잘 때까지 신 씨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라원은 '저속노화'를 키워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힐링테라피도 소개할 예정이다. 저속노화는 가속노화의 반

대되는 개념으로 노화가 나이와 비교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애라원 제작진은 저속노화가 중장년층만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CP는 "요즘 청년들은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걸 자기관리로 생각한다"며 "저속노화는 나이 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시작하는 게 아닌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하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 씨와 함께 애라원을 이끌어갈 3명의 코루에는 모델 이현이와 코미디언 흥현희, 신기루가 합류한다. 이현이는 자신의 관리 '꿀팁'을 공개하고 흥현희는 엄마의 시각에서 저속노화 비법을 탐구할 예정이다. "먹는 행복을 오래 즐기 위해 저속노화 방법을 찾겠다"는 신기루의 반응도 관련 포인트. 제작진은 이들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정확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2030 시청층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애라원은 '1화 저속노화'를 시작으로 수면, 여성호르몬 등을 주제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 CP는 "새해 계획이 보통 1월 1일과 구정 사이에 변하기도 하는데, 그 기간에 론칭이 되는 프로그램이니 시청자들이 새로운 건강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돕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송수현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최수연



강풀 작가 세계관 채널A '마녀'가 잇는다...반환점 돈 '체크인한양'도 관심 집중

박진영-노정의 주연 '마녀', 2월 15일 첫 방송



채널A의 새 토·일 드라마 '마녀'의 공식 포스터와 공개된 1차 티저 영상. '마녀'는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을 드라마화한 미스터리 로맨스물로 오는 2월 1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조선 시대 꽃청춘들의 파란만장한 성장기를 담은 청춘 로맨스 사극 <체크인한양>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채널A 토·일 드라마 <체크인한양>은 첫 방송부터 흥미진진하고 빠른 전개, 개성 만점 캐릭터들의 매력과 화려한 영상미로 입소문을 탔다.

<체크인한양>은 지난해 12월 30일에 방영된 4회 방송에서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평균 3.0%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전국, 수도권 모두 3.9%까지 올라갔다. 흥덕수(김지은 분) 사이에 둔 이은호(배인혁 분)와 천

준화(정건주 분)의 미묘한 삼각관계 속 흥덕수의 성별이 밝혀질 위기가 고조되자 시청률도 응답한 것이다. OTT 플랫폼에서도 <체크인한양>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방영 2회 만에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TOP10 시리즈'에서 3위에 올랐고, 그 후 꾸준히 '오늘의 대한민국 TOP 10 시리즈'(1월 13일 기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호응은 청춘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에 드라마 속 정치적 갈등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전 연령층에게 풍성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인한양>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책임지고 있는 스튜디오 2 박종은 CP는 "배우

들의 끈끈한 호흡과 화기에애한 촬영 분위기가 드라마 속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반환점을 돈 <체크인한양>의 후속작으로 채널A 토·일 드라마 <마녀>가 기다리고 있다. <마녀>는 인기 웹툰 작가 강풀의 동명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모두 다치거나 죽게 되면서 마녀라 불리며 마을에서 쫓겨난 '미정'과 그런 그녀를 죽음의 범칙으로부터 구해주려는 남자 '동진'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로맨스물이다. 극중 주인공인 마녀



'체크인한양'의 네 배우가 함께 한 촬영 비하인드 컷. 왼쪽부터 천준화(정건주 분), 흥덕수(김지은 분), 이은호(배인혁 분), 고수라(박재찬 분).

'미정' 역은 배우 노정의가, 동진 역은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갯세븐의 진영(박진영)이 맡았다. 마녀는 2월 15일 토

요일 오후 9시 10분에 첫 방송 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정수민



2025 서울마라톤 준비 시작! '폴코스 트레이닝' 인기

전문 코치진과 함께 훈련...MZ 러너들 관심 집중

새해 벽두부터 동아 마라톤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2025 서울마라톤 겸 제95회 동아마라톤대회' 참가 등록이 지난해 6월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됐지만 추가 접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은 2025 서울마라톤 폴코스 참가권 혜택과 함께 전문가들로부터 달리기 훈련도 받을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난해 말 본격 선보였다. 오는 3월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4만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25 서울마라톤의 사전 행사 격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2주 과정'과 '8주 과정' 중 선택해 반포종합운동장, 여의도공원, 남산 등에서 전문 코치진과 함께 단거리 중거리 달리기, 인터벌 트레이닝 등 다양한 훈련을 한다. 12주 과정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고, 8주 과정은 1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3회 이상 출석 시 2025 서울마라톤 폴코스 참가권을 얻을 수 있다. 7회

이상 출석하고 2025 서울마라톤 폴코스를 완주하면, 내년에 열리는 2026 서울마라톤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는다. 이미 2025 서울마라톤 참가 등록에 성공했지만 폴코스 대회를 앞두고 달리기 훈련을 하고 싶은 이들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알려지면서 100명을 모집하는 8주 과정에 약 700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60명을 모집하는 12주 과정에도 100명가량 지원했다. 최종 선발된 160명의 참가자 중 30대 이하가 57%에 달했고, 최연소는 2005년생 남성 참가자로 집계됐다.

12주 과정에 참가한 9년차 마라톤러 이소영 씨는 "동아마라톤대회 등록이 늘 치열하기 때문에 2026 서울마라톤 우선 참가권은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매년 개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김승현



① 서울마라톤 준비 폴코스 트레이닝 참가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②, ③ 2025년 3월 열리는 서울마라톤 겸 제 95회 동아마라톤대회를 준비하는 참가자들이 전문 코치진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

수상소식



히어로팀 관훈언론상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럼: 돈의 뒤편에 걸리다' 기획 시리즈가 2024년 관훈언론상 사회변화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불법 사채 조직을 5개월 간 추적해 부조리를 고발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승헌 편집국장 연세언론인상 수상



이승헌 동아일보 편집국장(사진)이 12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연세 언론인 송년의 밤' 행사에서 '2024 연세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보도본부 김호영 기자 문체부 장관상 수상



김호영 채널A 보도본부 문화스포츠투 기자(사진)가 12월 26일 체육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특파원 소식

워싱턴-도쿄 신임 특파원 신진우·송찬욱 차장 12월 16일 부임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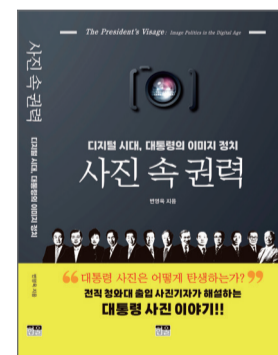
송찬욱
도쿄 특파원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를 담당할 신진우 차장, 송찬욱 차장이 지난해 12월 16일 부임해 특파원 업무를 시작했다. 두 특파원은 각각 문병기, 김민지 특파원과 임무를 교대했다. 두 특파원 모두 12월 17일에 각각 워싱턴과 도쿄에서 첫 기사를 내보냈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의 임기는 3년, 송찬욱 도쿄 특파원의 임기는 1년이다.

신간 소개

<사진 속 권력>

편집국 사진부 변영욱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변영욱 기자가 청와대를 출입하며 역대 대통령들을 직접 촬영한 경험을 책으로 녹여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진을 찍는 과정,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의 구체적인 일정과 경험에 기초한 대통령의 사진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엮었다. 1980~90년대 청와대를 출입했던 사진기자들의 증언과 미국 백악관 출입 사진기자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 등도 함께 담았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현병락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① 동아일보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에 조금은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4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동아일보가 나갈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기여하고,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② 하루 30분 운동하기! 식단 조절과 함께 식사 후 20분 걷기부터 시작해 하루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 더욱 건강한 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③ 조선아이에스(주)



장효원 / 채널A
편성전략본부

①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일하며, 채널A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자격증 공부와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며 틈틈이 체력 단련을 위해 열심히 운동할 생각입니다.
③ KT스카이라이프



이서영 / 채널A
보도본부

① 안녕하십니까 경력기자로 입사한 이서영입니다. 부지런히 발로 뛰어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② 최근에 리틀라이프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천 페이지를 압도하는 폭풍 같은 서사에 희로애락이 담겼습니다. 분량이 좀 길더라도 언젠간 꼭 탐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③ MBN



허준원 / 채널A
보도본부

① 지나가기 바쁜 오늘이 어제가 되고 어제가 모여 역사가 되는 그 순간에는 기자가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들을 따라 소임을 훌륭히 완수하겠습니다.
② 정착하는 삶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수선제게해 가정이자 기자로서 가족과 사회의 안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③ UBC 울산방송



김유진 / 채널A
보도본부

① 입사이틀 차에 이 글을 씁니다. 10년 넘게 신문만 만들다 방송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것, 잘해내고 싶습니다. 수습기자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겠습니다. 채널A가 좋은 뉴스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② 최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 그런 평가를 내리는 이유에 유독 귀 기울입니다. 한국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 고쳐야 할 것을 찾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③ 문화일보